

# KPPO NEWS

## KPPO 소식

### ★ 가을 총회



9월 20일 (화) 한국 학부모회(KPPO) 2016-17 정기 총회가 학교 2층 카페테리아에서 있었습니다. 새학기 첫 KPPO 행사 였으며 9학년 및 재학생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등 총 백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Mr. Davis의 인사 말씀과 전반적인 학교 안내, 각종 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전체 PPO의 secretary인 Ms. Sasha Conte의 PPO 활동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KPPO의 새 임원진 소개와 전년도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한인 교사로 민 미영 (미술), 김 덕양 박사님(화학), Rosalyn Kim(역사), Mingus Xu (중국어)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KPPO에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 ★ 9 월정기모임



2016-17 첫 정기 모임이 10월5일 (수) 풍림에서 있었습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관리 프로그램인 Power school, Schoology, Naviance 이용방법, Volunteer 등록, 지각과 결석에 관한 policy 등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유익한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Back to school night의 효율적인 스케줄링 방법을 설명하여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PSAT, SAT 그리고 ACT에 관한 정보와 NHS (National Honors Society)의 가입자격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또한 KPPO 9 학년을 위해 1년 동안 애써주실 대표님으로 Christine Lee (AMST, Justin Lee 어머님)이 선출되었습니다.

Korean Parents Partnership Organization  
Email : bcakppo@gmail.com



### 인사의 말

새 학기가 시작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달려오다보니 어느새 12월입니다.

BCA에 적응하느라 애쓰신 9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한 10, 11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지난 3년을 정리하며 대학 원서를 준비하느라 마음을 졸이고 있을 1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 모두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나 12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께는 이번 겨울이 좋은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원합니다.

지난 가을을 돌아보니 많은 부모님들의 참여로 KPPO 가을 총회와 두번의 정기모임 그리고 OPEN HOUSE, INTERNATIONAL TASTING 등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함께 나누고 봉사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신 부모님들의 후원 덕분에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교 및 전체 PPO와 더욱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활히 소통하며, 한국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정보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연말연시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PPO 회장 유주영 드림

## 11월 정기모임 세미나



KPPO 11월 정기모임은 솔로몬 컨설팅 관계자를 모시고 Financial Aid와 칼리지 컨설팅에 관한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nancial Aid

- 자산보고 서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둔다. 총자산및 최근의 수입의 증감에 대한 서류, 세금보고내용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 해둔다. 특히 11학년 때의 서류가 기준이 되므로 Tax return 자료를 챙겨둔다
- 각 학자금 보조 신청시, 데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킨다. 특정학교나 State은 이 부분에 철저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 NYU, NJ state ) 자세한 내용은:

[www.hesaa.org/Pages/StateApplicationDeadlines.aspx](http://www.hesaa.org/Pages/StateApplicationDeadlines.aspx)

#### HESAA's Deadlines for 2016-2017

All applicants ( Fall 2016 and Spring 2017) :

November 15, 2016

All applicants ( Spring 2017 only) : March 15, 2017

#### New Deadlines for 2017-2018

2016-2017 TAG recipients –Renewal applicants : April 15, 2017

All other applicants-Non Renewal applicants for Fall 2017 & Spring 2018 : September 15, 2017

All other applicants-Non Renewal applicants for Spring 2018 semester only : February 15, 2018

- Fafsa (주, 연방)와 Hessa (기타 성적및 특별 장학금) 로 크게 두 가지가 기본이니 먼저 필요한 서류및 조건등을 알아본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CSS file이라는 다른 form을 요구하므로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각 학교별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Grant와 Scholarship의 개념이 다르고, refundable 과 non-refundable 의 case(상환 유무)등 다양하므로 꼼꼼히 살펴야한다.
- 모든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을 한 이후에도 학교측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한 학교에 개인계정을 로그인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이상 학생과 부모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 3월 중순에서 4월초까지 받은 합격증과 어워드 레터를 토대로하여 5월1일까지 학교를 정하고 등록 디파짓을 해야한다.
- 디파짓을 한 후, 론이 필요한 경우는 론프로세스를 시작한다

### Financial Aid를 위한 Applications 종류들과 Forms

- FAFSA : IRS Data Retrieval and IRS Tax Return Transcript (언라인으로 서류들을 업로드 한다)
  - STATE GRANT Application : 뉴저지의 경우 타주에 비해 액수가 높은 편이나 매우 까다롭다.
  - CSS/Profile and NCP(Non Custodial Profile) :탑 아이비, 사립학교들이 요구하는 서류로써 무려 질문이 300여개에 달한다.
  - IDOC : 전산화 된 서류 제출용 플랫폼 –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한다
  - Institution Specific Document :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다
  - Need Access : 주로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랜트
- 이밖에도 각 학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form들이 있으므로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인지하고 준비 하도록 한다.

### College Consulting

크게 두 가지로 학생의 성적과 기타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 성적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학생의 GPA이다. 무리하게 어려운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못 받는 것 보단 좀 낮은 레벨의 수업을 듣더라도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다.
- SAT와 ACT는 각 학생에게 유리한 쪽으로 점수를 제출 할 수 있게 준비한다.
- SAT 2: 기본 두 과목의 점수를 제출하므로 더 보아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응시하는 학교의 관련 계열과 연관성있는 과목의 점수를 제출하면 좋다. 학교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참고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은 점수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 기타 활동 내용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학교의resources 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클럽활동, 리서치, 스포츠, 음악활동, Student council 등에서의 활약 한 내용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교내 활동은 보통 2개 정도를 꾸준히 하여 가능하면 리더쉽 포지션에서 활동 한 내용이 더 유리하다.
- 이외에도 Academic award, Special research competition 수상 경력, NMSQ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 AP Scholar, IB Diploma 등이 있으면 입시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Recommendations : 학교에서 받는 3장의 외에도 학생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지원 학교에 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추천서를 추가해서 보내는 것도 합격에 도움이 된다.
- 특히 주니어들의 경우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컴먼 앱을 미리 보고 어떤 내용이 있는 지, 어떻게 자신이 지원을 해야 하는 지, 대략적으로 지원서의 내용에 밀접하게 준비할 것을 권한다.

## BCA 소식



지난 10월28일 금요일 저녁 Fiesta Banquet (Wood-Ridge, NJ) 에서는 버겐 아카데미 개교 20년 이래 처음으로 BCA 동문의 밤 (BCA Friends & Family Gala) 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20년 간의 빛나는 학교 역사와 우리 버겐 아카데미만의 독특한 학교 커뮤니티를 기념하는

행사로, 특별히 수 년간의 논의와 많은 계획 속에 이루어낸 결실이었기에 더욱 더 값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 티켓이 일찍 매진 되었고 많은 졸업생들, 재학생들, 그 가족들과 현직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루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Mr. Davis 는 환영 인사를 드리며, 이 동문의 밤이 앞으로 우리 버겐 아카데미 동문들의 유대 관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격려 하셨습니다. 이어서 20년전 처음 문을 열었을때 입학한 AAST 소수의 학생들의 사진을 시작으로, 지금의 버겐 아카데미가 있기까지의 수 많은 노력과 수고 추억의 사진과 스토리를 나누는 영상을 보며 더욱더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애교심을 느끼는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KPPO의 현 임원진들을 비롯하여 한국 재학생및 졸업생과 그 부모님들의 참석도 눈에 띄었고, 특히 졸업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앞으로도 계속 버겐 아카데미의 한 가족으로, 선후배로 남을 것을 다짐하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한 성공적인 첫 동문의 밤이 되었습니다.



## PPO 소식

### ★ International Tasting Dinner



10월8일 (토) 학교 PPO 주최의 International Tasting Dinner 행사가 있었습니다. KPPO가 준비하는 Korean booth는 한국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에 힘입어 올해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비해 한국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 날이었습니다. 학교 community안의 여러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서 접할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신입생 및 신입생 가족의 참여와 호응 또한 높았습니다.

### ★ Admission Open House

10월 10일, 23일 30일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뉘어 총 6번의 BCA Annual Open House for Class of 2021 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버겐 카운티내의 8 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으로 모든 세션이 조기 등록 마감되어 다시 한번 버겐 아카데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신 Mr. Davis 의 인사와 학교 소개 비디오 방영을 시작으로 진행되어진 이 행사는 입학 관련 정보와 절차,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활동 수상 내역, 학교 커리큘럼, 과외 활동등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아카데미별로 나누어 학교 투어를 하지 않고 참가 학생들이 모든 아카데미를 돌아보며 각 아카데미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학교 투어가 진행 되었습니다.

이날 많은 한국 재학생들과 KPPO 소속의 학부모님들께서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 하여 주셨습니다.

## BCA News



- BCA Convocation 2016-2017년도 회의에서 Dr. Bath의 새로운 선생님들 소개가 있었으며, 교장 선생님 Mr. Russell Davis의 올해의 School Academic Theme으로 "정직, 성실 및 존중"이라는 연설과 더불어 새로운 환경학습센터 개설, 글로벌 교환 프로그램, 다양한 연구 기획 및 더 높은 수준의 IB 및 AP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 2016년 7월에 있었던 TSA (Tests of Engineering Aptitude, Mathematics and Science) 대회에 두개의 BCA 팀이 참가해 각각 1위와 2위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Team 2는 1st in Nation, 1st in Problem solving, and Top 10 in Nation Presentation으로, Team 1은 Nation Problem Solving 부문에서 2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 BCA의 SkillsUSA Chapter는 24위에 선정되어 "우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Models of Excellence는 SkillsUSA chapter 활동을 위한 개인, 직장 및 기술 스킬의 예외적 통합 및 적용을 인정하는 국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위한 최대 규모의 학생 조직중의 하나인 SkillsUSA가 수여하는 최고의 상입니다.
- BCA Jiwoo Lee (AMST 2017)가 Pittsburgh, PA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의 "White House Conference"에 참석 하였습니다. Jiwoo Lee는 미국내에서 초대된 7명의 고등학생 중 한 명입니다. 이 conference는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및 목표에 중점을 둔 conference입니다.
- 버겐 카운티 High School Writing contest에 7명의 BCA 학생들이 각각 1st, 2nd, 3rd honorable mention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BCA 두명의 학생의 연극이 New Jersey Young Playwrights Contest에서 선정되 수상하였습니다.

- 최근 New Jersey에서 열린 TSA-Technology Students Association에 BCA 학생들이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Team C는 2위를, Team B는 3위에 올라 내년 6월말에 있을 TSA Nationals로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Team A도 6위에 오르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 BCA Model UN팀이 Dalton School에서 열린 대회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이루며 많은 대표단상과 개별 상을 수상했습니다. 3명의 BCA 학생들이 US Physics Olympiad 준결승에 진출하여 은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 지난 5월 NY Albany에 있는 Siena College에서 열린 NY High Schools Business Plan Competition에 11명의 BCA 학생들이 참가하여 두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Nikhil Lohe, Samuel Olaogun, Jason D'Sousa는 1위로 \$1000상금을 받았고, Grace Zwemmer와 Katherine Park는 2위로 \$300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 BCA의 Caitlin Chan은 Sierra Nevada College Tahoe's High school이 개최한 작문 경시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 Kentucky의 Louisville에 있는 SkillsUSA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에 10명의 BCA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3개의 골드 메달의 획득하였고 지역 사회 봉사 프로젝트로 전국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상 시상식 및 기념식에서 National Chapter of Excellence로 인정 받았습니다.
- Nahariya Israel에 있는 Shchakim High School이 BCA초대를 받아 방문하였습니다. Stem실험실과 전자 연구실을 방문하고, 2015-2016 First Robotic Competition에서 만나 경쟁한것 만큼 일년동안 쌓아온 아이디어와 학교 프로젝트 및 curriculum을 공유하며 교환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상기 기사는 학교 웹사이트 **BCA News and Accolades**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s://bcts.bergen.org>

## 학교 주요 행사

2016-17 상반기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반기 주요행사를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PPO 행사

- PPO Monthly newsletter mailing
- PPO Picnic -5월
- Staff appreciation luncheon -5월
- Fieldday-6월

### KPPO 행사

- 2월 7일 (화): 정기모임  
강사: 김덕양박사님 세미나, 장소-학교 2층 카페테리아  
주제- Research opportunity
- 3월 14일 (화): 정기모임  
강사: 장 은숙 대표, College Consulting

## KPPO 학년 모임

9학년 : 매월 첫번째 화요일 :

12월 모임은 12/7에 14명이 모여서 2월 KPPO 모임 준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0학년:매월 둘째주 화요일 : 11/15

Hackensack POC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11학년 :매월 마지막 화요일 ; 12/20 풍림에서

JL Consulting Jason Lee 원장님을 모시고 대학 Consulting 관련 세미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12학년 :매월 셋째주 월요일 : 11/21 월요일

Oradell Ocean sushi 에서 모였습니다

## KPPO 신문팀 소식

2016-2017 새학년을 맞이하면서 신문팀은 두명의 9학년 새 식구를 맞이하였습니다.

차시연 Irene Hwang (ACAHA '2020)

김현애 Andrew Kim (ABFIB '2020)

환영합니다!!

## KPPO 9학년 모임



안녕하세요.

9학년 대표를 맡게 된 Christine Lee입니다. (Justin Lee, AMST)

저희 9학년은 매달 첫번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세미나 및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9학년이고 버겐 아카데미에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각종 학교 행사나 KPPO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KPPO를 통해 좋은 어머님들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학교와 KPPO에 힘을 보태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발전할수 있는 9학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어머님들께서 대부분 9학년 첫학기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시던데요. 제일 어려운 한 고개를 넘긴 9 학년 Class of 2020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더 멋진 한해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Main Office : ☎ 201-343-6000

결석시 ext. 2226 , Nurse ext. 2254

버겐아카데미 : [www.bergen.org](http://www.bergen.org)

BCA PPO : [www.academyppo.com](http://www.academyppo.com)

네비앙스 : <https://connection.naviance.com/family-connection/auth/login/?hsid=bca>

Power School: <https://ps01.bergen.org/public/>

# KPPO NEWS

## KPPO 회비 및 회계 보고

KPPO 연회비는 각 가정당 \$40 이며, 전체 PPO 회비 (매년 \$75)와는 별도입니다. KPPO가 참여하는 모든 학교 행사 지원 및 자체 활동비로 쓰여지게 됩니다. 회비는 연중 내내 납부하실 수 있으며 전년도 회비도 이월 납부 가능합니다. 회비납부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에게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실 분들은 아래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회비는 가능하면 체크로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dress: Dohyun Chun (BCA KPPO)**  
**465 Undercliff Ave. Edgewater, NJ. 07020**  
**문의: 회계 전도현(201-314-5487)**

수입	
Balance	\$2,518.99
PPO 보조금	\$400.00
Janet Lee Donation	\$200.00
International Festival Fee	\$1,050.00
Annual Fee	\$4,600.00
<b>수입 합계</b>	<b>\$8,768.99</b>
지출	
Nonprofit Organization Fee	\$337.50
Ulsan High School Lunch	\$235.00
Ulsan high School Coffee	\$68.00
Newsletter Printing	\$212.94
Newsletter Stamps	\$122.20
9월 총회 커피	\$89.82
비품구매비용	\$25.01
Janitor Tip	\$20.00
Flower for 고문님	\$21.40
International Festival (진고개)	\$760.00
<b>지출 합계</b>	<b>\$1,891.87</b>
<b>잔액</b>	<b>\$6,877.12</b>

## ★ KPPO 2016-17 회비 납부자 명단

AAST	ABF	AMST
Seung Kyun Hong	Sarah Kim	Bo Lee
Hyungjin Cho	Ruth Park	Yearam Yang
Jordan J Lee	Jimin Choi	Jaeeun Kim
Hyeongmin Kim	Brian Lee	Brittany Kang
Jaremy Kim	Emily Chang	Daniel Cho
Haneul Shin	Suzan Kim	Minsung Cho
Yongjay Kim	Evan Lee	Sumin Kim
Nahyeon Kim	Iris Lee	Chris Lee
Michael Chu	Peter Park	Hannah Noh
Ciyoon Kim	Charis Shin	Catarina Chung
Olivia Chung	Sang Yeop Lee	Minho Heo
Heidi Dayoung Yun	Nahyun Lee	Eugene Yang
Hye In Lee	Rachel Hur	Danny Kim
Andrew Song	Joseph Park	Justin Lee
Justin Oh	Andrew Kim	Chaehyeon Lee
Sebastian Jeon	Michelle Wu	Paul Kim
Justin Ha	Annette Kim	Samuel S. Cho
David Song	Lucas Kim	Michelle Yesion Oh
AVPA	Daniel S Lee	Amy Chun
Julie Ha	AEDT	Hyeo Yoon Kim
Olivia Kim	Summer Lee	Brandon Lee
Danyoung Kim	Kevin Shin	Jung Hyun Park
Sally Han	Dong Jin Yim	Mia Moon
Grace Kim	Caitlin Byoun	Sohyun Cho
William Chung	Jean Choi	Nicole Kim
Miriam Kim	Frederick Choi	YounJee Ko
Jasmine Kang	Mina Shin	Dongmin Kim
Paige Min	Benjamin Han	Hee Jin Choi
Ashley Kim	ACAHA	ATCS
Eilene Lee	Eunjung Emily Choi	Hee Jae Chung
Ye Na Ok	Yuna Chung	Andrew Lee
Claire Park	Noah Chun	Jae Hyun Mo
Keren Jo	Youna Choi	Iris Kim
Alexandra Kim	April Hong	Dong Young Kim
	Irene Hwang	Brian Cho
	April Yoo	Jungho Daniel Choi
	Erica Hwang	Jaehyeok Choi
		Alex Huh
		Daniel Kim
		Hannah Ahn

★ 회비 납부자 명단 관련 공지사항 - 단체 모임때 신청서 준비 미비로 인해 신청서 없이 현금을 많이 받은 결과 이름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시리라 예상 됩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전도현 회계에게 (hyun731205@hotmail.com)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학부모 참여 코너 - BCA에서의 첫 4개월 -

BCA에서 보낸 4개월을 돌이켜보니 첫째, 순조로운 스타트를 뒤로 하고 폭풍처럼 휘몰아치던 예상치 못했던 상황 발생에 그저 당황스럽던 기억, 그리고 두번째로 '어느새(?) 그리고 얼마나 더(?)' 하는 물음표, 항상 스스로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아이에게 BCA에서의 첫걸음은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 기대감과 약간의 두려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고 역시 BCA의 전통과 명망은 그냥 만들어 지는게 아니었음을 실감하고 있다.

아이에 대해 눈치 없이 높아지던 내 기대치도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서 위치를 찾게 해 주었고 아이 또한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통해 또다른 도전을 충실히 받아 들이고 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의 인생 15년만에 처음으로 부딪힌 난관을 극복하려 노력중이고 이를 지켜보는 나는 이러한 과정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격려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고마운 점은 자신이 선택한 아카데미에 현시점까지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하루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의 수행을 위해 자신과 싸우고 고민하는 노력들이 아이 인생에 순도 높은 자양분이 될거라는 확신을 가져 본다. BCA 신입생과 부모님들 힘냅시다. - MOM, ATCS -

몇 년전에 설마하는 생각으로 BCA를 목표로 고민했습니다. 몇 달전에는 혹시나 이 학교를 못 들어가면 어쩌나 하고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아이가 공부를 잘할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BCA학생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 & 수영하는 아들을 볼때마다 참 대견하고 뿌듯해 더는 고민하지 않으려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아들처럼 엄마인 저도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 Jaehyeok Choi mom ATCS -

지난 4개월동안 정든 타운 친구들 곁을 떠나 BCA 라는 새 환경속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새학교에 적응하며 하루 하루 보내는 날 지켜보면서 무척이나 자랑스럽다고 느꼈단다. 힘들어도 보람찬 이런 하루하루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질 너의 하이스쿨 4년 엄마는 항상 너의 곁에서 응원할게!!

- 이름없이 엄마가 -

아니 벌써 4개월이나 지났네요. 오픈 하우스 갔던게 몇일 전 같은데요. ^^ 겁도없이 한번 트라이 해보자 했다가 지금은 BCA 학생이 되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네요. 처음 한달 정도는 친구들 만들어 가는 과정이 얼마나 버라이어티 하고 잼 있던지 방과후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해주는 재미에 저도 그 학교 신입생이 된것 같았던 나날들이 벌써 몇개월전 일이 되었네요. 아이가 적응 잘 해줘서 고맙고, 신나서 학교 가는 아이 보니 고맙고, 모든 일에 스트레스 안 받고 알아서 해주는 든든한 아이 (아직까지는) 가 대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적 받기 힘들다 해서 전 맘을 비웠더니 저 또한 같이 행복 하네요. ^^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꺼라 믿어요. 수고하는 아이들 옆에서 지켜봐주는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고 핫팅 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KPPO 모임에서 뵈게 되는 선배 어머님들 수고에 항상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 성적에 맘을 비운 어느 엄마, AMST -

공부하고 운동하느라 힘들어 하는걸 볼때면 더 쉬운길도 있었을 텐데 괜히 고생 시키는거 아닌가 후회 스럽다가도 또 아이가 좋은 친구들과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지내는 모습을 볼때면 잘 결정한 일인거 같기도 하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며칠 전 아이가 저에게 'BCA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을수 있게 해 주는것 같다'는 말에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엄마인 저보다 더 담대하게 힘든길을 스스로 헤쳐 나갈수 있는 힘을 가진 고등학생으로 커가고 있는 아이에게 고맙고 또 앞으로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 하지않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 Justin Lee's Mom, AMST-



## 학부모 참여 코너 - BCA에서의 첫 4개월 -

Citing from Wikipedia....

BCA is often excluded from national high school rankings because "despite their exceptional quality, their admission rules and standardized test scores indicate they have few or no average students"

우리딸은 요새 이런말을한다. 학교에 가는것이 정말 싫지만, 한편으로는 또 너무좋다고. BCA 와 애증의 관계가 시작된 듯하다. 이 학교를 졸업한 사춘들이 새벽 2~3 시까지 책상앞에서 못 벗어났던 이유는 숙제를 먼저 하지 않고, 친구와 SNS 를 하거나 Korean drama 를 많이봐서 그랬을 거라고, 코웃음 치며 나름대로 해석하더니, 웬 걸.....자기도 그러고 있다.

쏟아지는 숙제와 project 로 정말 시간을 쪼개써야 한다.

이런 힘든 과정에서 얻는것이 꼭 있어야될텐데. 아인슈타인이 그랬다지. 본인은 절대로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만 남들보다 생각을 많이 했을 뿐이라고. 음.....일부동의.

BCA 에서 가르치는 스타일을 다는 모르고,또 전부 동의하지도 않지만, 몇몇 숙제를 들여다보니, 사고력을 필요로한것은 사실인 것 같다. 앞으로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서 사고력 및 자기관리능력을 키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는.....따뜻한 아침밥과 체력 보충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우리딸이 자신감을 잃지않고 잘 해내야 될 텐데. 아마도 그럴것이다. 왜냐하면....she is no average student.   
- Amy Chun엄마 AMST -

사랑하는 아들이...

감사한 마음과, 설레임, 긴장감을 가지고 버스 시간 늦을까 20분 전부터 가서 기다리던 날이 벌써 4개월이 지났구나. 이제는 버스시간 겨우 맞춰 나갈 만큼 느긋해진 너와 나(사실 엄마눈은 늘 시계에 고정^^). 하지만 감사함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설레임과 긴장감이 두려움과 초초함으로 바뀐 지금, 좋은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새로운 환경이 즐거워 늘 웃는 얼굴인 너에게 고맙지만, 늘 쿵광거리는 엄마의 가슴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How many times are you going to tell me!"... 너는 잔소리라고 하지만, 아들이! 관심이라고 하자. Acceptance 편지가 왔을 때 뭐라고 써있을지 두려워 실눈을 뜨고 본 엄마가 지금은 Power School을 볼때마다 실눈이 된단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믿기에 한숨 한번 쉬고, 심호흡을 하고, 웃는 얼굴과 자상한 목소리로 잔소리, 아니 무한 관심 발사!! 여기까지 와준 아들... 앞으로 어떤것이 어떻게 너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4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힘들어 넘어서면 쉬어가고, 늦을것 같으면 뛰어도 가보고,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거운 4년이 되기를 응원한다! 아들! 사랑한다! 화이팅!!!

- 엄마가. ABF-



September started off with great anticipation and uncertainty about what to expect at BCA. I was anxious for my daughter as she went off to Club Getaway with students and teachers she had just met. But as expected, she was just fine and returned after having a great time and forming wonderful new friendships. The first month was a period of adjustment for both of us with the longer school days, waking up at dawn to catch the bus, becoming familiar with new teachers and all the things that come along with a new school. Just as she adapted and became

more comfortable as the weeks passed, I also began to relax a bit more and felt relieved to see her settling in well.

It is hard to believe that four months have gone by already. I am sure the next four years will be over in no time! I know it will certainly not be easy and will require a lot of hard work, countless sleepless nights, and some tears. But I am grateful she has the opportunity to go through this at BCA. It was clear from the start that BCA was very different! It is a special place with an inspiring learning environment and many unique opportunities, along with the supportive parents of the different PPO groups that are there for first time BCA parents like myself. At the end of it all, we only want the best for our children and hope they take advantage of all that BCA has to offer and create many wonderful memories and friendships to last a lifetime!

- Alexandra's mom, AVPA Visual -

## 학부모 참여 코너 - BCA에서의 첫 4개월 -

BCA에서의 4개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거의 무중력 상태에서 불안함과 설레임으로  
시작된 BCA 생활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아침 일찍 조용히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다하고 나서는, 아침 잠이 많은 나를 살짝 깨우는  
아들에게... 다 챙겼니??? 한마디로 아침 인사를  
대신하며, 집앞에 온 스쿨버스를 타고 새벽 여명속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이 많이도 측은했지만,  
그래도 항상 덩덤히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물론 지난 4개월 동안 성적은 업다운 춤을 추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이 나름대로 BCA에서의 생존의 지혜를  
터득했으리란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  
BCA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고교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 엄마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Justin Oh's Mom, AAST-

합격통지서를 받은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8월 오리엔테이션과 9월 입학하던때가 생생  
하네요. BCA에서 4개월의 생활은 미들스쿨과는 정말 다른 생활  
이었고 힘든 4개월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만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기  
를 바래요..그동안 힘들지만 잘 지내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대견  
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아이들이 잘 지내고  
힘든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BCA에서 좋은 추억과 한층 더  
성숙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 엄마가,



요즘은 BCA를 지원하느라 고분군투하는 엄마들의 모습이 보인다. 저런 나의 모습이 엇그제 같은데....

그 당시 제일 부러운 사람이 BCA에 다니는 학부모였었다. 아마 그들도 내색은 안하지만 지금 내가 아마도 많이 부러울것이다.

이렇게 우리딸들, 아들들은 엄마, 아빠의 어깨를 우뚝하게 만들어 준 효녀,효자 들이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새로운 친구들은 어떨까, 수업에 늦지는 않나, 학교 런치는 어떨까...

직접 경험하지 못해 궁금한 부모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올 아이들은 신나게 학교 생활을 잘해주는 정말 효자,효녀임이 틀림없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무 공부만 하지말고, 그 나이에 경험해야 할 다양한 경험들을 다방면으로 즐기길 바란다. 그 시절은 다시 돌아 오는것이 아니니까.

- Claire Park's Mom, AVPA-Visual

★ KPPO News 12월호 학부모 참여 코너에 글을 보내주신 9학년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KPPO News에서는 의견 또는 제안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신문팀 okh5553@gmail.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